

“AIDS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DS 감염 현황

에이즈는 처음 1981년 미국의 동성애 남성들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세계적으로 환례가 늘어어나 1994년 6월말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에이즈 환자수 누계가 세계 190개국에서 98만을 넘는다. 세계보건기구의 추계에 따르면 2000년까지 3~4천만명이 감염되어 1200~1800만명이 에이즈로 발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륙별, 또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이즈에는 국경이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는 늘고 있다.

에이즈의 전파 양식에 대하여는 이미 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이 기회에 보다 명확한 정보를 또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

세가지 정도의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 첫째, 기본적으로 에이즈는 성병으로서 질 또는 항문 성교를 통한 전파가 에이즈 감염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약 75% 정도). 둘째, 감염된 사람의 혈액의 수혈 및 그 혈액으로 만들어진 항 혈우병 인자 등 혈액제제의 사용에 의한 감염인데 현혈 혈액에 대한 검사가 일반화되고 혈액제제의 제조공정이 개선됨에 따라 근년에 들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감염된 모성에서부터 태아 또는 신생아에게 전파되는 소위 수직감염이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에이즈는 일상생활 중 통상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지 않는다. 일일이 예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학생의 등교를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하여 학부모들과 보건당국이 토론회를 가진 적이



이 덕 형
보건사회부 방역과장

있었다. 학부모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자기 애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자 보건당국의 한 사람이 답변하기를 학생들이 섹스와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학부모들이 보장한다면 보건당국도 학생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바이러스의 농도는 정액 내에서 가장 높고 일시에 주입되는 양도 많다. 감염 여성의 질액도 정액의 경우만큼 높은 농도의 HIV 양이 증가하고 감염된 림프(임파)구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 성 접촉에 의한 감염전파 효율은 0.1~1%이며 남녀간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감염 전파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 접촉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전체 감염자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감염자와 한번 성교를 할 때 감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실제 개인에게 있어서 감염되거나 되지 않거나 두 경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성 접촉은
감염전파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한
AIDS 감염이
전체 감염자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에이즈 현황을 살펴보자. 에이즈 또는 HIV 감염은 국립보건원에서의 확인 검사가 뒷받침되어 진단되고 있다. 현혈액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실시하는 에이즈 검사 외에 1994년 9월까지 약 750만명에 대해 에이즈 검사가 이루어졌다. 에이즈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중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에이즈의 진단은 매우 신중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1차 스크리닝 검사에서 걸리는 많은 위양성 사례 중에서 국립보건원의 최종 확인검사 결과 양성(에이즈 감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1% 정도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국립보건원의 확인이 없으면 에이즈 감염을 확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첫 에이즈 환례는 1985년 6월말에 보고 되었다. 환자는 주한 외국인이었으며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곧 사망하였다. 한국인 첫 에이즈 환례는 1985년 미국 유학생 또는 교민에게 발생·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1987년에 보고 되었다. 환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수혈을 통해 감염되어 에이즈로 발병하여 같은 해 1월에 귀국하였고 2월에 사망하였다. 1994년 10월말까지 모두 25명의 에이즈 환례가 보고되었고 그중 22명이 사망하였다.(표1)

표1. 연도별 에이즈 환자 현황(1994. 1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계
남	-	-	1	2	-	2	-	2	5	8	20
여	-	-	-	1	1	-	1	-	1	1	5
계	-	-	1	3	1	2	1	2	6	9	25

우리나라 사람으로 첫 HIV 감염례는 1985년 12월에 확인되었다. 이후 일부 인구집단에 대한 에이즈 검사와 헌혈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따라 확인되는 HIV 감염례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표2). 1994년 10월말까지 모두 396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감염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는 검사대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주된 요인일 수도 있으나 실제 근년에 들어 오면서 에이즈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증거도 나타나고 있다. 근년에 확인된 감염자의 감염 시기가 대부분 가까운 과거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감염자의
75.8%(300명)가
사회·경제적,
성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20~30대이며
포함하면 40대까지
90%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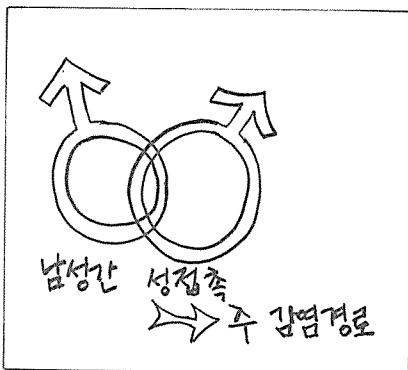
현재 남녀의 성비는 8.2도 아직까지 감염자의 대부분이 남자인 양상이며 다른 나라에서 처럼 근년에 여성에서의 감염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 감염자의 75.8%(300명)가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20~30대이다. 40대까지 포함하면 90%가 된다.

표2. 연도별·성별 에이즈 감염자 현황(1994. 1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계
남	1	1	4	17	35	50	38	72	71	64	353
여	-	3	5	5	2	4	4	4	7	9	43
계	1	4	9	22	37	54	42	76	78	73	396

성 접촉은 감염 경로가 알려진 감염례의 약 90%를 차지하는 가장 주된 에이즈 감염경로가 되고 있다(표3). 성 접촉 중에서 1992년 이전에는 해외에서의 성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1992년부터는 국내에서의 성 접촉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그 순위가 바뀌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우리 통계치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147명의 남자(전체의 약 37%)가 해외에서 여성과의 성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1988년 초부터 실시된 의향선원에 대한 에이즈 검사결과 확인된 것이다. 참고로 이 강제성격의 검사는 1933년 5



1992년과 1994년에는

남성간 성접촉이

제1위의

감염경로로

나타났다.

더우기

국내에서

이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고

알려진

82명의 남자중

상당수가

실제는

동성에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부터 선원 단체의 자체적 검사로 전환되었다.

동성에 남자에서의 감염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2년과 1994년에는 남성간 성 접촉이 제1위 감염경로로 나타났다. 더우기 국내에서 이성간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다고 알려진 82명의 남자 감염자 중 상당수가 실재는 동성에 경험이 있으면서도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국내 성 접촉으로 감염된 40명의 여자 중 15명은 외국인과의 성 접촉이 그 감염경로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미 알려진 감염자의 배우자로서 접촉자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경우이다.

수혈과 관련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의 대부분은 외국에서의 수혈 또는 외국산 성분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며, 일부 국내에서의 수혈감염 사례도 9건 있다. 이 9건 모두 감염자의 감염초기(항체가 충분히 생성되기 이전)에 현혈된 혈액의 수혈로 감염되었다. 에이즈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현혈을 스스로 삼가하도록 알고 있고 에이즈 검사의 정도관리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본다.

‘불명’으로 분류된 사례들은 대부분 소재파악이 안된 경우이고,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남편과 동반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상처를 통해 감염된 ‘사고’ 사례가 있다.

아직 정맥주사 마약사용자에서 에이즈 감염례가 없다. 이는 외국에 비해 마약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도 기인할 뿐 아니라 일회용 주사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주사기를 공용할 위험이 거의 없는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감염모

성이 출산한 예는 3건이 있으나 아직 수직감염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표3. 연도별 감염경로별 에이즈 감염자 현황(1994. 10)

감염경로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계	
성 접 촉	국 외	남	1	1	-	12	21	29	19	22	24	18	147
	이성간	여	-	-	-	1	-	-	-	-	-	-	1
	국 내	남	-	-	1	1	5	15	7	13	22	18	82
	이성간	여	-	3	5	4	1	4	3	4	7	9	40
	동성간	남	-	-	-	2	7	5	5	28	13	19	79
수혈 관련	남	-	-	3	2	2	1	7	8	9	1	33	
	여	-	-	-	-	1	-	-	-	-	-	1	
사고·불명	남	-	-	-	-	-	-	-	1	3	1	5	
	여	-	-	-	-	-	-	1	-	-	-	1	
역학조사중	남	-	-	-	-	-	-	-	-	-	-	7	7
	여	-	-	-	-	-	-	-	-	-	-	-	-
계	남	1	1	4	17	35	50	38	72	71	64	353	
	여	-	3	5	5	2	4	4	4	7	9	43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HIV 감염자는
확인된
감염자 수의
약 3~5배로
추정되며
주 감염경로가
내국인 간의
성접촉인 점,
현재 수준의
감염증가 양상 등을
전제로 할 때,
2천년까지
수천명 수준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발생을 개관하면 비슷한 시기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도입되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외국과 비교하여 감염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에이즈 통계가 특정 인구집단과 혈액에 대한 검사를 배경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에이즈 실태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이러한 과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HIV 감염자수는 확인된 감염자 수의 약 3~5배로 추정되며 내국인간 성 접촉이 주된 전파경로가 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수준의 감염증가 양상이 지속된다고 전제할 때 2000년까지 수천명 수준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계를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 즉 에이즈 감염의 전파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결론으로 이 글을 맺는다. **㉔**